

진도 주민 16%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주민의 1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주민 중 20%도 같은 증세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이주연 교수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주민 자원봉사자(756명)를 포함한 진도주민 2298명(남성 1144명·여성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각나고 쉽게 놀라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나타난 진도주민은 16%인 362명에 달했다.

전남대병원, 세월호 참사 당시 설문 조사 주민자원봉사자 20%도 같은 증세 겪어

특히 광복항에서 자원봉사에 나선 주민 151명(20%)은 뚜렷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였으며, 전반기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반 주민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161명, 여성 201명이 같은 증세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람이 전쟁·고문·자연재해·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뒤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뒤에도 계속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는 "참사의 충격이 크다 보니 희생자 가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돕는 상황 만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나타날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재난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구조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노출된 다양한 구성원의 정신건강

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진도 심리지원단장으로 구조대원과 지역 주민의 의료지원을 담당했던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진상 교수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고의 광범위한 영향을 대비해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동안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통합정신의학(Comprehensive Psychiatry) 최근호에 게재됐다.

진도=조성용 기자

中 산시성서 H7N9 AI 환자 7명 발생 2명 사망

중국에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극성기를 지나서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산시(陝西)성에서 다시 2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은 5일 산시성 위생계획생육위 발표를 인용해 최근 관내에서 H7N9 AI 환자 7명이 발생했으며 5명은 회복했지만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H7N9 AI 감염자는 이날 오전 9시 시점에 시안(西安)에서 2명, 셴양(咸陽) 2명, 바오지(寶雞) 1명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2명이 외지에서 걸려 돌아왔다고 한다.

앞서 윈난(雲南)성 윈산(文山) 자치주 위생 당국은 지난 2일 마리포(麻栗坡)현과 마관(馬關)현 시장에서 H7N9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시장을 폐쇄하고 생가금류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간 H7N9 AI에 4명이 감염됐으며 이중 한 명은 회복해 격리병동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3명이 병원에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역에서는 3월 H7N9형 AI 감염자 96명이 생겨 이중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4월에도 81명이 H7N9형 AI에 걸렸고 21명이 끝내 사망했다.

법제망(法制網)은 올해 들어 5월 중순까지 H7N9형 AI로 숨진 사람이 23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신 H7N9형 AI 사망자 통계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홍콩 위생부 위생 방호센터는 6월1일 시점에 중국 각지에서 H7N9형 AI에 704명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생긴 곳은 장수성으로 143명에 달했으며 그 뒤로 저장성 89명, 광둥성 63명, 안후이성 59명, 후난성 58명, 장시성 38명, 후베이성 28명 순이었다.

이밖에 북부 지방에서는 수도 베이징이 20명, 톈진 2명, 랴오닝성 3명, 지린성 1명 등이다.

日 하네다 공항 쓰레기통서 실탄 100발 발견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 쓰레기통 안에서 지난 4일 다량의 실탄이 발견됐다. 일본 경시청은 60대 미국인 여성을 5일 총포법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받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해당 실탄은 4일 오후 4시경 하네다 공항 국제선터미널 3층 출발 로비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청소 담당자가 발견했다.

이 실탄은 22구경 총포의 실탄 100발로 봉지에 싸인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이 쓰레기통 인근 등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실탄은 60대 미국인 여성이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4일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일본에 입국했으며,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 머물다 5일 새벽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여성은 "실탄은 미국 자택에서 아들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실수로 가져왔다"면서 "일본에 입국한 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이 생각나 쓰레기통에 버렸더라는 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이 여성이 실탄을 소지하고 세관 검사를 통과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런던 화재 피해민 대다수, 3주째 호텔방 신세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의 피해민 대다수가 사건 발생 3주가 지나도록 새 거처를 찾지 못하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렌펠 타워 화재 생존자들의 변호를 맡은 '노스 켄싱턴 법률상담소'(NKLC)는 4일(현지시간) 피해민 수백 명이 임시 호텔에 투숙 중이며 재정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베이스 NKLC 소장은 일간 가디언에 정부가 피해민들에게 새 거주지를 제안하긴 했지만 주거 형태나 지리적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스 소장은 "주민들은 여기 노스켄싱턴에 있는 학교나 지역 시설에 대했다. (정부 제안대로) 켄싱턴 하이 스트리트로 이주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멀다"고 설명했다.

베이스 소장은 일부 피해민들은 화재 충격 때문에 고층 건물 재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간의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거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주민들의 우려사항이다.

전남도, 부실 안전진단 전문기관 43곳 '적발'

6개 업체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최근 2개월여간 지역 63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2년 29개였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2013년 32개, 2014년 41개, 2015년 52개, 2016년 58개, 올해 63개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결실한 업체 육성과 부실한 업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안전진단 측정 장비의 검증 및 교정 이행 여부, 하도급 범위 이외의 불법 하도급 또는 타 업체 명의의 대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강진 H사 등 6개 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관리 실태가 매우 중요함에도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진단장비 고장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결실하고 책임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물 보니 엉덩이가 '들썩'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에 손을 담고 있다.

간호인력 부풀려 요양급여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 등 2명 구속

전남경찰청, 면허 빌려준 재단 관계자 등 93명 불구속 입건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의료·간호인력을 부풀리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와 요양급여 심사기관 직원 B(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

사·물리치료사 등 79명에게 월 10만원~30만원씩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들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으로 허위 등제한 뒤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친분이 있던 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9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단 직원들에게 1회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뒤 550여회에 걸쳐 환자들을 유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가산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심사기관 직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골프를 접대받거나, 사무장 병원의 매점을 운영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의 환수·추징을 위해 범죄 사실을 건 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또 각종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땀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www.kjbank.com | 고객을위한 행복금융파트너 | 